

# 문화 **그림과 나무속에 禪 사상 담아** ... 자연과 삶 일체된 세계 추구

## 오제 전정구 전각가

“스님, 환구름이 청산으로 왔던가요?” 차를 마시며 선문답하는 모습을 선화로 표현한 전정구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일으킨다. 선화, 전각, 판화 등 선(禪)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전 작가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그것이다. 편안하면서도 경쾌하고 명쾌하면서도 담담함이 배어나오는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빙글이 미소를 짓게 된다.

7월 31일, 인사동에 위치한 오제 전정구 작가(54)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전각으로 시작해 판화, 선화까지 폭넓은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 요즘은 비구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18년 동안 팔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전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전각 공방을 다니며 공부하기도 했는데 제한된 잘 맞지 않았어요. 독학을 했으니 틀에 맞추어 작품을 할 이유가 없었죠. 작품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니 초창기에는 기존의 선배들과 마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한테 맞는 작업들을 찾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전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 일상 그리고 인간의 삶이 하나 되는 세계를 추구한다. 고정된 틀에 갇히기를 싫어하는 그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 선상에서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고전적인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또 그 속에서 탈탈한 인간미까지 배어나온다.

특히, 전각 작업은 알음알음으로 그의 작품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을 만큼 인기가 좋다. 그는 전각 중에서도 한글 작업을 즐기는데 한글의 조형미는 그 어떤 언어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제 작업의 대부분은 문자를 모티브로 해요. 한글만큼 아름다운 문자가 없죠.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종과 획 원과 각이 모두 들어있어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한글



전정구 작가는 선을 모티브로 전각 선화 판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왔다.

### 2012년 프랑스서 개인전 열기도 “한글만큼 아름다운 소재 없어” 대행 스님 저서에 삽화 작업도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최근에 완성한 한글 반야심경 전각조각도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선화는 여백의 미가 백미를 이루기에 출판물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한 마음선원의 선법가 CD집과 다이어리, 대행 스님의 저서 <禪, 침묵의 천둥소리> 등에 그의 작품이 삽화로 들어가 눈길을 끈다. “제 전시를 보러 오신 한마음선원 스님들이 작품을 삽화로 넣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 작품이 여백이 많기 때문에 삽화로 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듯해요. 그 이후로 한마음선원과는 10여년 정도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공방으로 출근해 밤늦게까지 작업실을 지키는 그는 여느 직장인들보다 오랜 시간 작업을 한다. 혼자서 공방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고독한 일이지만 이

작업이 곧 수행이라고 그는 말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고행의 연속입니다. 돌을 깎고 채색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전 과정을 홀로 이루어내는 일은 외롭고 쓸쓸하죠. 한겨울에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새로운 작품을 잉태시키는 또다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홀로 작업하는 과정은 수행과 같아요.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또다시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니 말이죠.”

2012년 프랑스에서 제 5회 개인전을 열기도한 그는 앞으로 2년 정도 꾸준한 작업을 거쳐 새로운 전시를 열고자 한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보다는 제 세계가 충만히 표현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작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좋은 전시를 열고 싶습니다.”

비 개인 오후처럼 늘 좋은 일만 있으라는 의미를 담은 그의 호 오제(烏齊)처럼 전정구 작가는 외로움을 딛고 하나하나 작품을 잉태해 나가며 대중들에게 화창한 오후를 선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수 기자 bwjhs@ryunbul.com



'섬과 바다' 그의 선화는 짧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여백의 미가 백미를 이룬다.

한글 반야심경 전각조각

# 산 그리워 진작부터 절에서 자고 싶었네

## 신라 화엄십찰의 장엄미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화엄사(華嚴寺)는 이름 그대로 화엄의 이념을 받드는 사찰이다. 화엄은 꽃들의 장엄이다. 물론 꽃이란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일체중생이 그 자체로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밝히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라 의상 대사는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전국에 큰 화엄사찰을 조성했다. 부석사와 해인사 등이 대표적인데 화엄사도 화엄십찰의 하나로 꼽힌다. 8세기 연기조사에 의해 대가람으로 사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창건 배경에서부터 다양한 설화가 전하며 그 깊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우서 깊은 절은 역사적 진실보다 신앙적 감동이 많다. 4사지3층 석탑에 얽힌 연기조사 이야기와 각황전 창건이야기 등은 화엄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중생들의 귀의처였는가를 말해준다. 화엄사는 신앙적 역사와 가치를 떠나서도 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하다.

근절로서의 화엄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수없이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해 왔다. 도량이라는 유형의 존재는 전경과 노략질의 화마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가르침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아 다시 불전을 짓고 향화를 사르며 불심을 이어 온 것이다.

다른 큰 절들에 비해 화엄사를 배경으로 지은 시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원래부터 화엄사를 읊은 작품이 많지 않은 건지 멸실 누락되어 전해오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비들의 시문집에 전하는 화엄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조선 후기의 학자 매천(梅泉) 황현(黃玟 1855~1910)의 작품이 그의 문집 <매천집>에 전한다.

매천 황현은 전남 광양에서 출생했다. 1883년(고종 20) 초시에 1등으로 뽑혔는데 시험관이 시골출신이라고 2등으로 내려버렸다. 그는 중앙관료의 부패에 환멸을 느껴 회시와 전시를 치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친의 권유에 못 이겨 시험에 응시해 장원을 했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이 이어지며 급변하는 정국에 수구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 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구례로 낙향한 황현은 3000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독서와 글짓기에 매진했는데 역사연구와 경제학에도 깊이 빠졌다. 국권상실로 치닫는 위기를 느끼고 후손들이 민족의 정기를 이어가도록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동비기략(東匪紀略)> 등을 지었다. 1910년 8월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했다.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 ㉓ 화엄사 ㉔



화엄사의 중심공간 각황전(국보제 67호)

### 매천 황현의 템플스테이

이건창 김택영과 함께 구한말의 삼재(三才)로 불릴 만큼 문재(文才)가 뛰어났던 황현. 그는 37세 되던 해에 화엄사와 관련된 시를 지었다. ‘약속대로 해학과 함께 화엄사에 가대(赴海鶴華寺之約)’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두 수가 <매천집> 제1권에 전한다.

마수종명이모천(馬首鐘鳴已暮天)  
목란화노감당년(木蘭花老感當年)  
벽사홍수조평중(碧紗紅袖擘平仲)  
춘초명금몽혜련(春草鳴禽夢惠連)  
모우불사초아음(冒雨不辭招我飲)  
사산구의여승면(思山久擬與僧眠)  
독서대로유능기(讀書臺路猶能記)  
전급분명백담전(級分明白塔前)

만방을 울리며 가노라니 날은 저물었는데  
목단꽃 시들었어라 변화한 때가 느껍구려.  
푸른 김붉은 소매는 평중을 비웃었거니와  
봄풀이랑 우는 새는 혜련을 꿈꾼 거고 말고.  
비를 무릎쓰고 숲자리 초대는 사양치 않고  
산이 그리워 진작부터 스님과 자려고 했었네.  
독서대 가는 길을 아직도 기억하거니  
백돌 계단이 분명히 흰담앞에 있었지.

시의 제목으로 보아 황현은 해학이라는 스님과 교유를 한 것 같다. 첫 수에서는 스님과 함께 화엄사로 간 소감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수련에서는 말을 타고 저물녘에 화엄사에 도착하고 보니 목단꽃이 시들어 만개하던 한 때를 생각해 한다. 무상의 질서를 일몰과 시든 목단 꽃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함련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는데 ‘푸른 김 붉은 소매는 평중을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등장 시킨다. 평중

(平仲)은 송나라의 이름난 재상 구준(寇準)의 자이다. 시인 위야(魏野)가 준을 수행하여 섬부(陝府)의 사원에 가 노닐면서 각각 시를 쓴 일이 있었다. 뒤에 다시 함께 그 사원에 놀러 가서 보니, 구준의 시는 이미 푸른 김으로 잘 싸놓았으나, 위야의 시는 그대로 방치하여 먼지가 끼어 있었다. 마침 그 일행을 수행했던 총명한 한 관기(官妓)가 즉시 자기의 붉은 옷소매로 먼지를 닦아내자, 위야가 천천히 말하기를 “항상 붉은 소매로 먼지를 닦을 수만 있다면, 푸른 김으로 싸 놓은 것보다 나은 것일”이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唐 荆川 7>에 전한다.

이어지는 ‘봄풀(春草)이랑 우는 새는 혜련을 꿈꾼 거고 말고’라는 대목도 중국 고사를 끌어 온 것. 송나라 시인 사영운(謝靈運)이 시를 지으려는데 도저히 시상이 막혀 좋은 글이 떠오르지 않다가 꿈에 그의 친척 동생 사혜련(謝惠連)을 만나 “못독 위에 봄풀이 난다(池邊生春草)”라는 시구(詩句)를 얻어 시를 완성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절을 귀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꿈에 혜련을 보았다는 말은 명작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황현은 화엄사에 당도하여 목단을 통해 무상의 질서를 느끼고 도량의 아름다움을 통해 ‘잘 된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심미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절에 닿은 선비의 마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경련과 미련에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드러내 하룻밤 절집에서 스님과 두런두런 이야기 하며 자게된 것을 즐거이 여기는 심사를 보여준다.

서른일곱 살의 선비 황현은 읽던 책과 세속의 수심을 내려놓고 화엄사로 템플스테이를 간 것이다.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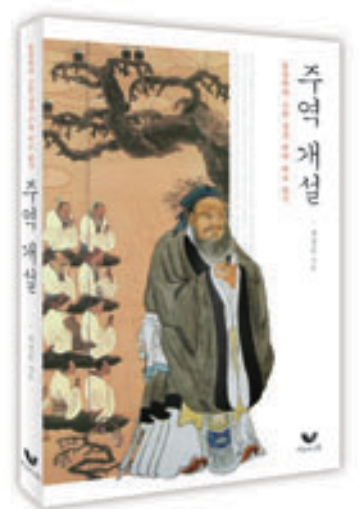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영구 관음선원장).

##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습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습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명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